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27.(금)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접경지역 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강조

- 물로 여는 평화, 한반도 상생협력 대토론회 개최. 접경지역 물안전 강화 방안 논의
- 임진강·북한강 등 공유 하천의 방류 정보 확보와 재해 대응으로 주민 안전 제고
- 재해 사각지대 없는 물관리로 국민 물안전 확보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기반 마련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누구나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회물포럼, 국가물관리위원회,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물로 여는 평화, 한반도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자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조 사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물안전을 지키는 것이 물관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처럼 남북이 함께 이용하는 하천은 상류의 댐 운영이 하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방류 정보의 사전 확보와 신속한 전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과 재해 취약지역의 물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한 물을 누리는 물복지를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개성공단 정수장 운영 등을 시작으로 한반도 수자원에 대한 이해와 물관리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은 접경지역의 수문 상황을 파악하고 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축적된 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예방 정책을 뒷받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원탁토론에 이어 ▲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협력 ▲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국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물·환경 현안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국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접경지역 물안전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민들이 물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접경지역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물 안전망을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자원기획처 수자원계획부	책임자	부 장	정현식 (042-629-3111)
		담당자	차 장	김광천 (042-629-31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회물포럼, 국가물관리위원회,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물로 여는 평화, 한반도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